



정읍 돌고 도장 받자

시, 연말까지 모바일 스탬프 투어...기념품 증정

정읍시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모바일 앱을 활용한 '모바일 스탬프 투어' 이벤트를 진행한다.

스탬프 투어는 모바일 앱을 내려받거나 검색창에서 '정읍시 스마트 관광 전자지도(https://jeongeup.dadora.kr)'로 접속해 주요 관광지 지점인 곳을 돌며 모바일 인증도장(스탬프)을 받는 이벤트다.

스탬프 투어 대상 관광지는 내장산 레저휴양권, 정읍시 문화권, 동학농민혁명 문화권, 태산 선비문화권 등 4개 권역의 17개소다.

관광객이 전자지도 또는 앱을 실행시킨 후 해당 관광지를 방문하게 되면 GPS 인식을 통해 자동으로 스탬프가 찍힌다.

모바일 스탬프 투어 참여 대상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정읍시민을 제외한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이벤트는 오는 12월 31일까지 진행된다.

참여자 5개 이상의 스탬프를 획득

하고,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스탬프 미션이 완료된다.

시는 매일 말 미션을 완료한 참여자에게 정읍만의 특색이 담긴 기념품(마그넷 3종 혹은 전통부채 중 1개)을 우편으로 전달할 예정이다.

특히 개인 SNS에 인증하면 스마트폰 그림 특을 추가로 제공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또는 정읍시 관광과(063-539-5231-5236)로 문의하면 된다.

유진섭 정읍시장은 "천혜의 자연환경과 문화·역사 유적지가 가득한 정읍에서 지친 심신을 달래며 휴식을 즐겨보시길 바란다"며 "이번 스탬프 투어를 통해 관광 활성화와 함께 친체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보탬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kwangju.co.kr



고창 운곡습지 센서 카메라에 포착된 담비.

<고창군 제공>

고창군 운곡습지 멸종위기종 잇따라 발견

담비·샬·수달 등

고창군 운곡습지에서 담비와 샬, 수달 등 멸종위기 야생동물들이 잇따라 발견되고 있다.

최근 전북지방환경청이 관리하는 운곡습지 센서 카메라에 멸종위기 야생동물들이 잇따라 포착됐다.

공개된 영상에는 담비가 먹이를 물고 급히 자리를 뜨는 모습이 생생히 담겼다. 담비는 멸종위기종 2급으로 호랑이가 자취를 감춘 남한 지역에서는 최상위 포식자로 알려져 있다.

특히 담비의 출현은 운곡습지 생물다양성 측면과 생태계 안정을 확인할 수 있어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

여기에 수달(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천연기념물 330호)과 샬(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 멧도

끼 등의 다양한 포유류들이 이동하는 모습도 카메라에 잡혔다.

전체 면적 1797㎢(약 55만평)에 달하는 고창군 운곡습지에는 식물 500여종과 곤충·동물 360여종이 서식한다. 국내에서 이 정도 규모의 생물종이 한 지역에서 서식하는 것은 매우 희귀한 일이다.

고창군은 관련 영상을 전북지방환경청과 협의해 운곡습지 생물 다양성을 홍보하고, 생태적 가치 인식을 높이기 위한 영상으로 제작해 배포할 계획이다.

이성수 고창군 생태환경과장은 "운곡습지는 생물종 다양성 유지 기능뿐 아니라 탄소흡수원으로 탄소 중립에도 기여하는 중요한 자원이다"며 "앞으로도 운곡습지를 잘 보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교육·홍보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군산시, 어업 경쟁력 강화 나선다

에너지 절감형 어선 보급·사고예방 시스템 구축...재해보험 지원 등

군산시가 어선어업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을 다양하게 추진한다.

군산시는 어업인들 안정적 조업기반 조성을 위해 온실가스 배출 절감 및 그린에너지 정착실현을 위한 '친환경 에너지 절감장비 보급사업'에 나선다.

사업비 1억 3800만원을 확보해 친환경 에너지 절감형 어선 기관 및 유류절감장비 사업 등도 이뤄진다.

또 해난사고 예방을 통한 어업인의 생명과 재산

을 보호하기 위한 '소형어선 안전장비 지원' 및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으로 2억3500만원을 투입해 어업인에게 레이더와 GPS 플로터, 초단파대무선전화(VHF-DSC), 구명조끼, 선박 자동입출항 단말기(V-PASS)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재해보험 지원도 받을 수 있도록 어선원, 어선 및 어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재해보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한 '연근해어업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사업'으로 7억8000만원을 들여 안정적인 어업경영

활동 보장할 방침이다.

어선 어업인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어선보험, 어선어업 근로자인 어선원의 생명보호를 위한 어선원보험, 어업작업 중에 발생하는 부상·장해·사망 등의 보상을 위한 어업인 안전공제보험으로 진행한다.

군산시 관계자는 "어선 안전사고 예방 및 인명피해 최소화, 어업인의 소득증대 및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어업경영 개선과 안정적 조업 기반 조성, 재해보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어업인 재해보상 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군산=박기섭 기자 nogusu@

안심하고 물놀이 하세요

순창군 관리지역 17곳 점검

순창군이 본격적인 물놀이철을 맞아 관리지역 17곳의 안전 장비 및 안내판 설치 여부를 점검하고 안전관리 요원에 대한 교육을 마쳤다.

군은 코로나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에 역점을 두고 물놀이 지역을 관리할 방침이다.

물놀이 지역에 배치되는 안전관리요원 34명을 대상으로 행정안전부 안전교육 전문 강사의 현장 실무교육도 진행했다.

교육은 물놀이 안전 장비 사용, 사고 시 대처요령, 익수자 구조, 심폐소생술 실습, 자동 심장 제세동기 사용요령 등 현장 대응에 초점을 맞춰 이뤄졌다.

/순창=장양근 기자 jyg@kwangju.co.kr



순창군은 관리지역 17곳의 안전 장비 및 안내판 설치 여부를 점검하고 안전관리 요원에 대한 교육을 마쳤다. <순창군 제공>

익산시, 미륵산 명품등산로 조성 나서

유네스코 연계 관광자원화...자전거 힐링길·출렁다리 등

익산시가 역사와 문화, 관광을 아우르는 미륵산 명품등산로 조성사업을 본격화한다.

익산시는 미륵산 등산로 조성을 위해 전문가와 지역민의 의견을 담은 기본계획안 마련에 나서고 있다.

시는 미륵산의 자연경관과 함께 미륵사지, 국립

익산박물관 등을 권역화하는 등산로 조성을 통해 파급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구상이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유네스코 세계유산과 연계한 관광자원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구상이다.

등산로는 삼기면 죽청마을과 미륵산 정상을 연결

해 마을과 순환할 수 있는 마을길을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또 자전거 이용객과 보행자들을 위한 쉼터와 힐링경관을 담은 자전거 힐링길이 마련된다.

특히 출렁다리를 건설해 관광객의 유치는 물론, 미륵산권역 삼기면의 명물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익산시 관계자는 "미륵산권역은 자연경관과 역사문화가 어우러진 공간으로 이를 관광자원화 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유정영 기자 yjy@kwangju.co.kr

남원시, 구직활동수당 지원 청년 모집

내달 13일까지

남원시가 다음달 13일까지 '청년 구직활동수당 지원사업' 참여 청년 70명을 모집한다.

청년수당은 미취업 청년들의 사회 진출을 돕고 구직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청 자격은 주민등록상 남원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39세 최종학력 졸업자,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면서 구직의지가 있는 미취업 청년이다.

시는 정량평가와 구직활동계획 등을 통해 고득점 순으로 참여자를 최종 선정해 다음달 20일 시 홈페이지에 공고할 계획이다.

선정된 청년은 월 3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수당을

지원받게 된다.

참여하고자 하는 청년은 남원시 기획실 청년정책팀으로 방문 접수하거나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이환주 남원시장은 "청년 구직활동수당 지원사업을 통해 청년들이 취업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고 취업을 향한 희망까지 채울 수 있도록 하겠다"며 "청년들이 돌아와 꿈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더욱 다양한 지원 정책 발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손해보험협회

엄마, 보고 싶어요

음주운전!
당신 자녀의 미래가 사라집니다.

만취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 최고 무기징역!
2018년 음창호변이 통과되면서 음주운전 적발 및 사고 시 처벌 수준이 대폭 상향되었습니다.